

## 중등 교육의 위기 타개를 위한 방향 모색

조 창 섭 \*

### I. 서 언

서구식 교육 제도의 도입에 의한 100여 년에 걸친 우리의 이른바 근대식 교육은 눈부신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농경 사회에 머물고 있었던 우리 사회를 산업사회로 탈바꿈시켰다.

교육으로 민족 정신을 계승하여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는 뜻있는 인사들은 앞 다투어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자녀의 장래를 보살피 주고자 하는 부모들은 어떠한 경제적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였고, 국가의 운명이 교육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한 정치 지도자들은 근대 교육의 확대를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도 급속히 향상되었다.

### II. 우리 교육의 문제

그러나 교육의 사회 발전에 대한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함께 정비되기 시작한 제도권 교육에서 각 학교는 수치화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을 축적하여 객관성을 지니는 학교의 순위가 결정되었고, 수능고사의 도입으로 그 순위는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그 결과 순위가 높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입시 경쟁이 과열되어 소위 '일류대학 진학 병'이 횡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나름대로 수많은 정책과 '교육 개혁안'을 제시하며 교육 전반을 통제하고 지시 행정을 펴기 시작하였다. 특히 군사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교육 현장은 당국의 지시 행정에 따라야 하는 타율적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과, 교사는 직업적 전문성과 창의적 유능성을 발휘할 여지를 잃어버리고, 근년에는 매질하는 폭력 교사, 촌지 받는 부패한 교사로 낙인 찍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이에 교사의 사기는 떨어지고 권위 또한 추락되어 학교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어 교육 현장은 화석화되고 있다.

학력은 저하되고, 학교의 교육에 한계를 느낀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으로 내몰거나 조기 유학을 보내고 심지어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민을 떠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교육 붕괴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으나 본인은 다음 네 가지로 압축하고자 한다.

- 첫째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
- 둘째 이른바 수요자 중심 교육
- 셋째 입시 위주의 교육
- 넷째 전통적 가치 교육의 부재

우리는 이 각 항의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교육 붕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1)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

교육 발전을 추구한다는 미명 하에 끊임없이 제안되어 온 우리의 교육 정책은 안타깝게도 그 중 상당수가 시행착오를 거쳐 폐기되거나 변경되어왔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상당수는 교육 현장의 실상을 간과하고 우리와 역사적, 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미국 등의 선진국 이론과 제도를 비판이나 수정없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미국에서도 일찍이 다이앤 래비치(Diane Ravitch)가 19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의 미국의 학교 교육의 변천을 분석하면서 100년 간에 걸친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학교 교육은 그대로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학교가 사회 개혁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개혁을 주장한 존 듀이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진보적인 교육 운동을 폈다. 그러나 1957년 인공 위성 스푸트니크의 충격을 받은 미국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한 교과 과정’이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킨 것에 주목 진보적 교육 운동을 중단하고 모든 학생에게 수학, 과학, 외국어 등의 기본과목을 가르쳐야 한다는 윌리엄 배클리의 주장을 미국의 각 주는 받아들였다. 그 이후에 교육에 반작용이 일어나 60년대에는 ‘열린 교육’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하게되어 197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주정부가 고등학교 필수과목을 법으로 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미국 교육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래비치는 교육 개혁을 하겠다고 내놓는 교육정책들은

교육을 망치는 전염병이라고 하면서 교육 정책 중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 정책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교육 정책은 다른 모든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기본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실효성이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 필요성과 사회적 경제적 실천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과연 가치로운 것인지 미리 점검되어야 하고, 추진 가능하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제안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이 공공재임을 감안할 때 교육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각각의 절차에 어떤 이유로든 모자람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준비되고 합의된 교육 정책이 아닐진대 합부로 내놓거나 추진해서는 안 되며, 또한 확실적인 추진보다는 교육 정책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하여 점진적이고 부분별 추진으로 교육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정책의 수립과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교육관련 관료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교육관료의 부서 이동은 자제되어야 하며, 교육 부총리의 잦은 경질도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혁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라든지,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현실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인위적으로 시한을 정하고 추진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교사들의 제자에 대한 무관심과 교직 이탈이 다반사로 변하는 교육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sup>2)</sup> 당국은 교육 정책을 수시로 남발할 것이 아니라 래비치의 제안처럼 실효성 있는 ‘교사 양성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교육 붕괴를 막고 교육 현장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 2) 수요자 중심 교육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스승과 배우는 제자간에 이루어지는 “사람”에 관한 활동이다. 이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 활동이다. 정신 활동에 수요자와 공급자라는 경제학의 개념과 용어를 도입하여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상행위로 묶어버린다면 존경과 사랑으로 엮여지는 스승과 제자간에 정신적 유대관계는 심히 손상되어 ‘바람직

2)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경험을 도외시키고 수립되는 입시 제도의 변화, 정년 단축, 열린 교육의 도입, 수행 평가 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교육 정책으로 인하여 낮은 봉급에 사회적 홀대를 받아도 교직에 대한 긍지와 자존심으로 수행하여 왔던 교육 활동에 심한 회의를 느끼며 스승으로서의 사명감을 박차버리고 직업인으로 전락하기 시작하였다. 가르치는 것이 직업일진대 우수한 교사가 돈을 많이 주는 학원으로 발탁되어 나가는 것에 주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한 인간을 양성한다.’는 교육 본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공교육에서 경제적으로 그 효용을 따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을 상행위(商行爲)로 규정함으로써 교육 행위를 수치화 계량화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스승을 지식 공급자로 학생을 수요자로 부르게 되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간화의 과정이나 지적·문화적 재생산과 계승이라는 인문학적 교육의 본질을 도외시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을 상행위에 의하여 사고 파는 상품으로 정의할 때 교육의 본질은 훼손되고 교육자는 단순히 지식 판매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교육에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하다가 보면 교사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하여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학생은 학교보다 나은 사설 학원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며, 인간성 교육과 도덕·윤리 교육은 설자리를 잃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존경과 사랑의 관계를 이탈하여 삭막한 너와 나의 관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붕괴는 자명한 귀결인 것이다.

수요자라는 용어 자체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터에 수요자 중심 교육은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제 7차 교육과정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 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초·기본 교육으로 10개의 교과를 개설하여 교과목 수를 줄여 놓았다. 교과목 수를 줄여 놓은 것 같지만 각 과목을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과목 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어서 교사들은 복수의 교과목을 지도하게 되어 교사의 전문성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학제간의 연구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학제간 연구의 전 단계에선 학문의 개별적 심화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창의성과 정보 능력을 함양시키겠다는 구호 아래 설계된 7차 교육 과정은

1.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2.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3. 재량활동의 신설 및 확대
4.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5.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의 확립
6.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함양과 정보능력의 함양 등으로 되어 있다.

7차 교육 과정에 따라 수행될 특별 보충과정, 교육과정의 평가 등에 문제가 있으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기초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다. ‘국민 공

통 기본 교육' 기간을 넘긴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79개 교과목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듣도록 되어 있다. 학문 전반에 대한 정보도 개관도 없는 학생이 자기 입맛에 맞는 교과만 고른다고 하면 학문 도구과목으로 꼭 필요한 외국어와 같은 어려운 과목이나 엄격한 선생님이 지도하는 과목들은 모두 배제해 버릴 것이 틀림없다. 교육은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서 좀 더 아는 사람에게서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활동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아직 미성년인 학생의 의사에 따라 교과목을 선정하여 이수하게 하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장기적이고 균형있는 인력 양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하다. 유감스럽게도 7차 교육과정 설계의 기본 틀에는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여 실패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육 신보>에 따르면 수요자 중심 교육에 따른 제 7차 교육과정을 입안한 사람들이 소수의 교육이론 전공학자와 교육관료 그리고 교육평가원 연구자들이라 한다. 이들이 단시일에 입안한 바를 널리 검토하는 과정도 생략하고, 이를 담당할 교사들에게는 의사 타진도 사후 설명도 할 틈이 없이 '마땅히 시행해야 하는 제도'로서 현장에 던져버린 것이다.

미래세대를 육성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수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간의 교육적 성취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7차 교육 과정의 교육 평등 사상은 지양되어야 하며, 인간에게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 따로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는 “능력별, 적성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능력별이란 수학 능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자기의 능력을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는 지식·정보 사회로서 소수의 지식 엘리트가 만들어내는 지식 재생산품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부강한 국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 현장이며, 교육 현장에서 교사 없이는 어떠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교사의 권위와 사명감을 저해하며 학생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현재와 같은 수요자 중심 교육은 기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를 추진할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 과정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설계하여 기초 영역과 응용 영역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입시 위주의 교육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제도는 교육법이나 인류의 오랜 교육 전통 속에서 보편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교육 활동의 모형으로서 제도적 역사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고 또한 최소한의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 제도는 광복 이래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자주 바뀌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에 맡겨졌던 학생 선발권이 박탈당하고, 시험의 과목, 시험의 수준, 주관식이나 객관식이나 하는 등의 시험 방법 등에까지 교육부가 개입하게 되었다.

이렇듯 끊임없이 바뀌어 온 입시 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 자녀를 ‘좋다는’ 대학에 입학시키고자 하는 학부모의 열망이 그것이다. 그리고 학교는 이러한 소망을 저버릴 수 없게 되고 이는 과열 입시 경쟁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누구나 입학을 소망하는 서울대학교에 합격시키는 학생 수에 따라 고등학교의 우열이 정해지고 교사들도 등급이 매겨지기 시작했다. 우수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중등학교 설립자나 교장은,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대학 입시를 겨냥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학생도 입시와 무관한 교과 과목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었다. 이 가운데 이른바 학문의 도구 과목으로서, 또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제2외국어가 도외시되고, 사회와 과학 교과도 점수 따기 쉬운 쪽으로 선택이 풀리게 되었다.

‘점수’에 치중하다보니 수업 방법도 창의성 개발 등은 도외시되고 암기식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하게 되었다. 원리의 규명과 그 적용은 뒷전으로 밀리고 단편적 암기에 매달리게 되었다. 심지어는 국사(國史)마저도 역사적 인과율과는 무관하게 역사 사건을 그저 외우는 암기과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서 생겨나는 폐해는 중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비중을 높여주었다. 그리하여 교육 방송마저도 ‘교육’이 아닌 ‘수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이른바 TV 과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교육 입시제도에 관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입시 제도는 끊임없이 바뀌었다. 중등학교 교과 과정은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되기보다는 입시 제도에 적합하도록 편성되었다.

그러자 시간과 여유가 필요한 인성교육, 가치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시대에 뒤진 교사로 낙인찍혀 그들이 긍지와 자존심으로 수행하여 왔던 교육 활동에 심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이럴바에야 수입이 나은 학원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입시 준비만을 위한 지식 전수에 열중하는 사교육 부문의 발빠른 대처에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보다 학원의 수업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 학생들도 학교의 교사가 매를 들면 저항하며 고발까지 하지만 학원 선생이 매질을 하면 참고 순응하는 매우 비정

상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대학은 대학대로 이런 식으로 교육받고 들어온 학생들의 교육에 매우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정 영역을 분석하여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학문적 소양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등 학생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다할 유명 과학자나 학자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은 공교육 붕괴의 주범이 되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은 입시 제도와 관련되어 있어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개발하기는 어렵겠지만 다음과 같은 것을 그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교육부는 입시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대학에 위임하여야 한다.
2. 물리적으로 통합한 기초·기본 과목의 수를 더 줄이고, 여타의 과목은 과목 이수 후에 평가를 하여 당락만 결정하고, 이 평가를 입시에서는 참고만 할 것.
3. 학부모의 의식 변화를 위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시도할 것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선 입시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대학에 맡기는 것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결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중학교 무시험제도, 고교 평준화, 대학에서의 학부제 도입 등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과거의 입시 정책들은 모두 실패하였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제는 대학 평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먼저 학부제를 강행하고 일류 대학 죽이기, 특히 “서울대학교 죽이기”를 감행할 것 같은 기세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통제와 간섭이 없었다면 입시 제도에 대한 각 대학의 자발적인 개선을 통하여 지금쯤 상당한 누적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며 공교육이 이렇게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과목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7차 교육과정에서 과목을 물리적으로 줄였는데, 과목들에 대한 평가를 대학 입시에서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목 이수 직후에 과목별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를 대학 입시에 참고 사항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대학 입시에서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2외국어는 평가를 통하여 특정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증서를 발급하여 차후의 평가에서 영구히 제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교사에 대한 불신이다.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공평 무사한 교육 행위를 하는 교사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학력과 학벌이 자녀의 출세에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열을 누그러뜨리지 않는 학부모의 의식 변화도 요청된다. 이러한 의식 변화는 단시일에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요구의 변화에 따라 즉, 학벌과 학력에 의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인력을 채용하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4) 전통적 가치 교육의 부재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이 먹혀들지 않는다. 공부 시간에 낮잠을 자도 숙제를 해오지 않아도 지도가 불가능하다.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옷을 단정히 입어라는 등의 행동 규범에 대한 제약은 더욱 먹혀들지가 않는다. 이제 선생님을 향한 존경심이나 두려운 생각이 전혀 없어졌음을 뜻한다.

산업 사회의 출현으로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 제도가 정착됨으로써 교육의 산실인 가정 교육이 붕괴되어, 집안 어른들의 행동에서 무언으로 전수 받았던 행동 규범인 도덕·윤리 교육이 단절되었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종아리를 때리던 부모의 자혜로운 가르침이 “다른 아이보다 성적이 나아야 한다.”고 종아리를 때리는 부모의 이기적인 욕망의 표현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가정 교육의 변화 속에서 도덕·윤리 교육은 실종되고 말았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단절된 전통 교육을 서구식 교육 체도에 접목시켜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도덕·윤리 교육에 역점을 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덕·윤리 함양에 역점을 두는 교육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간에 발생한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윤리의 함양은 책을 보고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스승의 고매한 인격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스승의 행동에서 풍겨나는 도덕적 행동을 체험할 때 자연스럽게 도덕·윤리가 함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가치 교육은 교사가 존경과 권위를 부여받아 자기를 닮은 제자를 기를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시작조차 하기 어렵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기저에는 삶의 기쁨과 슬기를 함양해주는 가정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가정 교육의 재건은 공교육 재건의 토대이며, 이 연장선상에서 교사는 제자에게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도덕관과 윤리관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당국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고헌력 시대에 걸맞는 교사 양성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들만이 가정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도덕·윤리관을 제자에게 함양하도록 하여 공교육의 붕괴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부 뜻있는 학교, 뜻있는 선생님들이 좋은 뜻을 세우고도, 뜻을 이루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가치 교육을 시간 낭비로 치부하거나 이를 위한 지원이 규정상 어렵게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운영을 책임진 교장이 이러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학부모도, 교사 단체도 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하며, 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장이 자기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려움 없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Ⅲ. 문제해결 방안으로서의 교사 양성

교육 붕괴의 원인을 네 가지로 압축하여 설명할 때 네 가지 모두와 직결되어 있는 것은 교육 현장의 교사이다. 훌륭한 교사를 통하여 화석화된 교육 현장에 생기를 불어넣고 교육 붕괴를 치유하기 위하여 옛 선현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한다.

이조 중기 이후의 교육과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 - 1572) 선생께서는 “한 가문에서 영의정이 나오면 그 가문의 영광이다. 그러나 3명의 영의정이 나오는 것보다 한 명의 대제학이 나오는 것이 더 큰 영광이며, 3명의 대제학이 나오는 것보다 한 명의 선생님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스승에 미치지 못한 처사로 호칭하고 제자들에게 선생님이 되기를 가르쳤다. 그 결과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당하여 국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의 제자들은 앞다투어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려고 하였다. 의병장의 수만도 50명을 넘었으며, 그의 경의(敬義)사상은 오늘날에도 그 지역의 행동 규범이자 교육 이념으로 전수되고 있다.

우리의 전통교육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단순히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행 일치를 통한 도덕 규범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학생은 선생님의 학문을 전수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덕이라는 도덕·윤리관을 전수 받았다. 즉, 스승의 학덕(學德)을 그대로 전수 받아 스승과 닮은꼴의 학식과 인성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어 올바른 삶을 영위하도록 해 주는 스승이야말로 벼슬길에 나아가 세상을 경영하는 영의정보다 귀한 존재요, 벼슬길에 나아갈 갈 유생을 가르치는 곳의 수장인 대제학보다 귀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철학자 화이트 헤드는 “교육된 지성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민족은 멸망하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통 교육에서 가졌던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되살아날 때 교사는 긍지를 지닐 수 있을 것이며, 주어진 권위에 입각하여 사랑으로 제자를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의 부시대통령도 취임 후 제 1성으로 발표한 교육개혁안에서 제안한 7대 강령 가운데 교사의 질적 향상을, 학생들의 학력 증가에 이어 제 2항으로 꼽고 있다.

교사는 지식전달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스승이라는 것에 온 국민은 동의하여 스승의 권위를 제고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권위를 부여받아 존경의 대상이 되는 교사가 스승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사가 선생님이로서 품위를 유지하면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교사는 교육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교육 이념과 교육 목표를 구현하는 스승으로서,

축적된 지식과 제자를 가르치겠다는 열정과 제자를 보살피는 사랑, 그리고 비판적 이성 등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소양은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듯 특수한 소양이 필요한 교사의 양성은 모든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특수한 성격을 갖는 고등교육기관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이라는 제도는 이에 해당하는 외적 형식이다. 그리고 교육이 교사나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해결 과제 중의 하나라는 점에 주목할 때 교사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설립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재정적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국립 사범대학을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세계 대부분의 교사 양성 기관은 국립 기관이며, 학생들은 재학 시절부터 교사 교육을 받고 활동할 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보조를 받고 있다.

국립 사범대학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대안이 나와 있거니와 이를 토대로 본인의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육의 전문성과 이에 기초한 사범대학의 정체성을 인정하여 사범대학의 교사의 양성과 재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위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은 빈번한 개혁 시도의 대상이 되었고, 기초대학과의 관계가 문제시되었다. 교사란 교육 내용과 교육 이론을 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교직원과 사명감을 장시간에 걸쳐 체질화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2. 사범대학에 독자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의 권한 및 재정을 보장하여 교육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적 지도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에 위임된 36학점 교양 과목은 사범대학에서는 인간이 지녀야 할 품성의 함양을 목표로 삼는 인문학 분야의 과목과 인간의 사회적 활동과 그 조건을 다루는 사회과학 분야의 과목과 인간의 생물학적 삶과 그 환경을 다루는 자연과학 분야의 과목 이외에 정신 도야를 위한 특수 체육과목과 전통 교육에서 강조된 행위 규범 교육을 위한 우리의 고전에 대한 과목들이 개설하여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이 가능하도록 짜여져야 한다.
3.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수 요원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수준에서 대폭 증원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이 없다면 이는 있으나마나인 것이다. 현재 학생 수가 비슷한 기초 대학의 동일계 학과와 비교해 볼 때 사범계 학과들은 교수 요원이 태부족인 것을 알 수 있다.

4. 사범대학에 교육 실천 및 연구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기자재를 확보하여 이를 운영할 인력과 재정을 확보해 주도록 해야 한다.

이것 역시 이제까지 ‘점잖은 선생님들’로서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러나 더이상 점잖게 있기에는 사범대학의 책임이 너무나 막중한 것이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비를 계산하고 현대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5. 사범대학의 고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종합대학 내에서 독립된 행정 체제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 IV. 결 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과학 기술 개발로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여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지식 창출과 기술 개발의 바탕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국가 통치의 중심을 이루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교육이 붕괴되어 민족의 장래가 위태로워지고 있는 현실이기에 우리는 교육 붕괴의 원인을 네 가지로 압축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국립 사범대학의 육성을 제안하였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교원이 없는 교육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교원이 없는 학교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교육은 미래의 경쟁력이다. 교육 붕괴를 겪고 있는 일본은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뒤지는 것은 현재에 뒤지는 것이지만 교육에 뒤지는 것은 미래에 뒤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교육의 틀을 새로 짜고 있다.

우리 교육의 새로운 틀은 특수화된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우수 교사를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 개혁으로 상처받은 국립 사범대학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과거의 사범대학으로 되돌려, 직업적 전문성과 학문적 유능성을 함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사명감을 가진 진정한 “선생님”을 기르는 기관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교원양성 교육에 영향을 준 주요 교육 정책이나 제도
------------------------------

연월일	법령 및 제도	내용	비고
1946. 3. 7	미군정청 학무국	사범대학 신설 발표	
1946.11. 7	문교부	서울, 개성, 강릉, 부산 목포, 군산, 충주, 순천에 8개 사범학교 신설	· 부족한 교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사범학교에 강습과, 초등교원 양성소, 연수과 등을 부설하였다.
1948. 8.15	문교부 직제편성	1실 5국: 비서실, 보통교육국, 고등교육국, 과학교육국 문화국 편수국	
1949.12.31	교육법 제정	사범학교 및 사범대학설치(수업연한 2년)	· 이러한 사범학교부설 단기 초등교사 양성과정과, 중등교원양성소는 1959년까지 모두 폐지됨
1950. 3.10	교육법 개정	① 사범학교의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자로 함 ② 초급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단일화함	
1954.11.11	문교부령 제39호	중등교원 보충을 위해 일반대학에 교직과를 설치	· 사범대학과 문리과대학 사이에 중등교사 양성의 기본철학과 이념을 둘러싼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
1961. 2.23	문교부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2년제 사범대학 설립	
1962. 2.17	문교부	교육대학 설치	
1963. 1.16	문교부	교육대학원 설치 방안 발표	· 교육이론연구 격려
1963. 8. 7	교육법 개정	① 사범학교제 폐지, 2년제 초등교원 양성 교육대학 창설 ② 2년제 사범대학 폐지, 중등 교원은 4년제 사범대학에서 담당하게 함. ③ 중학교 졸업자로 한 5년제 실업 고등전문학교 창설	· 교원의 전문성신장 · 교원의 신체적 성장고려

연 월 일	법령 및 제 도	내 용	비 고
1963.11. 1	교육법 개정	① 실업계학과 담당의 교원 육성을 목적으로 4년제 실업계대학에 실업교육과를 설치할 수 있게 함	· 1969년 중학교 무시협진학, 1974년 고교평준화로 인해 교원 수요 증대 · 1970년대 산업발달로 인한 교원 이직을 증가 →문제해결을위해 1967-1973년까지 임시중등교원양성소를 설치·운영
1966.	문교부	지역에 따라 부족한 교사를 각 지역에서 양성하도록, 일반계 대학에 사범계학과인 교과교육과를 설치하도록 함	
1970. 1. 1	교육법 개정	전문학교제도를 신설하고, 그 입학자격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수업연한을 2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학교는 3년으로 함	
1970. 7.23	교육법 개정	대학원 교육과 졸업자에게 정교사 자격을, 교육대학 교원에게 교감 또는 정교사자격 수여	
1979. 1.18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① 초급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승격 개편 ②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으로 개편 ③ 한국항공대학을 폐지	
1981. 2.13	교육법 개정	2년제인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함	· 초등교원의 학력신장이 최대 목적
1982.	문교부	실업계 지정대학제도 폐지 및 교직과정 이수자 수 제한	· 정원의 30% 이내
1984. 3.15	한국교원 대학교 설치령	한국교원대학교 설치	· 설치 필요에 관한 논쟁을 불러일으킴
1986.12.31	대학학생 정원령 중 개정령	사범계학과의 정원 감축	· 교과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사 공급과잉 발생
1990. 8.27	문교부	국립사대 우선 임용 특혜 폐지	· 1990.10.18 국립사범계졸업생 우선 임용이 위헌임을 판결

연월일	법령 및 제도	내용	비고
199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41조	교원교육원이 교원연수원으로 바뀌면서 초·중등교원의 현직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 따라 그간의 양적 위주의 접근에서 질적 위주로 교원양성 정책이 변화</li> <li>· 현직교육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현직교육기관의 증설을 촉진시킴</li> </ul>
1995. 1. 5	교육법 개정	교육대학에 초등교육 전공 대학원 설치	
1997.12.13	초·중등교육법	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산학점임교사, 명예교사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1997.12.13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1998.10. 7	교육부	사도장학금을 99년부터 연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1999. 1. 1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원부족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li> </ul>
1999. 2.12	교육부	‘교원근무여건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장 임기제 폐지</li> <li>· 수석교사제 도입</li> <li>· 교원양성기관 및 교원 평가제 도입</li> </ul>
1999. 3. 2	교육부	초등교원 1000명 추가 선발	
1999. 3. 4	교육부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격을 20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	
1998. 8.12	교육부	교원들의 잠무를 줄이기 위해 각종 문서를 전산처리 할수 있도록 전 국 초·중·고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함	
1999. 8.17	대전시교육청	전국 최초로 초·중등교사 임용 시 수습교사제 도입	
1999. 9	교육부	초빙계약제 시행으로 명예퇴직교원의 30%를 재임용	

연 월 일	법령 및 제도	내 용	비 고
1999. 12.	교직종합 발전방안 (시안)발표	<p>●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 발표</p> <p>가. 배경</p> <p>① 7차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직으로서 교직의 특성에 맞는 양성·자격 및 임용제도 마련</p> <p>②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에서 필요한 교사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p> <p>③ 교단 중심의 새로운 자격, 직급 제도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제도로 교육활동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받도록 승진체제를 재구조화한다.</p> <p>나. 교원양성·자격 및 임용제도 개선 사항</p> <p>①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등학교, 초·중등 통합 학교를 전담하는 자격증을 신설</p> <p>② 교원양성·연수 기관의 질적 수준을 확보·유지하기 위하여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p> <p>③ 교원 양성 인원을 조정 (초등 증대, 중등 감소)</p> <p>④ 현장 적합성이 높은 우수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대·사대의 교육과정에서 교과 교육을 강화</p>	<p>· 7차교육과정 때문에 교사양성·자격·임용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7차 교육과정은 이 시안을 2001년부터 시행한다해도 시행 후 첫 교사가 배출되는 2004년에는 완성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p>
2001. 10. 6	교대학점제 실시 발표	<p>학급당 학생 수 35명으로의 감축을 위해서 부족한 교사를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대에서 70학점 이수 후 초등교원으로 임용</p>	<p>·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p> <p>· 현행대로 교대 3학년 편입학을 통해 양성하면 2005년까지 수급 가능</p> <p>· 속성코스료 대량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부족</p>

< 참고 문헌 >

- 교육부(1988). **문교40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8). **교육50년사**. (주)청운인쇄.
- 교육부(1999).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
- 박수정(1999). **“한국 사범대학 제도의 창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완(2000). **“사범대학 교사교육 특성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1998). **교육학 대백과사전**. 하우동설.
- 윤정일 외(1996).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 심연미(1997). **“한국 대학교육 개혁의 정치·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신문사(1999). **한국교육연감 1999**.
- 한국교육신문사(2000). **한국교육연감 2000**.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체제의 기능분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제88-24-55.
- 한국고등교육협의회(1991). **한국고등교육기관의 유형별 역할 정립과 그 지원체제의  
활성화 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1997). **교원 인사제도 국제비교연구**. 연구보고 RR97-8.
- 한국교육개발원(1998).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 연구보고 RR98-8

< Abstract >

A Direction of Solutions to the Crisis  
of Secondary Education

Cho. Chang-sub\*

One hundred years' modernized education in Korea has been the driving force of the impressive progress from an agrarian society to industrialized one. As each school accumulates intangible property, the objective ranking of schools was graded within the range of institutionalized formal education which began to be prepared at the end of World War II. Consequently, an extremely competitive entrance exam named the 'disease of hoping to enter only a top-ranking university' immersed.

It is difficult that teachers can fully realize their professionalism and creativity under this environment. On the contrary, teachers have recently become the target of reform by the thought that they are violent and morally bankrupt. Because of this condition teachers' morale and authority precipitated their disability of control over the classrooms.

There are many reasons as to what factors led to the deterioration of the Korean educational system. Here, we will discuss four major causes of the crisis in secondary education: 1) in consistent educational policy, 2) consumer-oriented education, 3) entrance-exam centered education, and 4) the lack of traditional values.

Teachers are related with all four of these factors when we try to explain the collapse of formal education and only through them formal education can be rejuvenated. Based upon lots of solutions to a problem of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llege of education for training teachers my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e should recognize the professionalism and identity of college of education and improve the conditions in which teachers are trained and reeducated.

Second, we should the authority of college of educ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

\*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ration of unique curriculum and finance should be guaranteed so that they could develop a subjects that help students build their knowledge and leadership can be developed.

Third, the number of teaching staff for effective curriculum operation should be increased.

Forth, facilities and equipments for training teachers and educational research, secure human resources and financing for the implementation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college of education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at of the university to achieve its own goals.

In conclusion, we condensed the causes of the collapse of formal education into four factors and suggested the ways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llege of education. The new framework of our educational system will be constructed by committing teachers who are trained in specified and professional educational institutes.